



심리정치

한병철 지음

은밀한 신자유주의 통치술

출간되자마자 큰 주목을 받으며 'OO사회' 열풍을 불러일으킨 '피로사회'의 저자 한병철(베를린 예술대학) 교수의 신작 '심리정치'는 마음 자체가 자본의 인질로 붙들린 현상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그간 저자는 전작 '피로사회'에서 '할 수 있다'라는 성과사회의 명령 아래 소진되어 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보았다. '투명사회'에서는 '투명함'이 만인이 만인을 감시하는 통제사회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짚어내기도 했다.

'심리정치'는 '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창출하고 이용함으로써,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착취하게 하는 은밀하고 세련된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말한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적 심리정치는 호감을 사고 욕구를 채워주자 하는 '스마트 권력'으로 인간의 의지를 조종해 자본에 의존하게 만든다고 본다. <문학과지성사·1만1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두번의 자화상

전성태 지음

20년 흔들림 없는 창작혼

특유의 성실함과 간단없는 자기경신을 통해 우리 문단을 대표하는 세월공로자 리매김해왔던 전성태 작가가 새 작품집을 펴냈다. 올해로 등단 20주년을 맞은 작가가 '늑대'(2011) 이후 새롭게 출간한 '두번의 자화상'은 흔들림 없이 창작의 세계를 걸어온 작가의 소설적 성취가 담겨 있다.

열두 편의 단편소설은 인간의 심연을 날카롭게 포착하며 기억에 녹아 있는 사실과 진실, 현실과 비현실 등을 추적한다. 이번에도 작가 특유의 해학과 풍자적 스타일은 단단하게 짜인 구성, 절제된 문체는 문체와 어울려 잔잔한 공명을 선사한다.

문학평론가 정호수는 "작가 이력 이십년, 제대로 된 말의 의미에서 현대성을 품어낸 한국소설의 리얼리즘이 전성태의 이름으로 갱신되고 넓어진 시간을 함께 해온 보람이 뿌듯하다"고 작품집 의미를 평한다. <창비·1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평등·배려·소통의 사랑법, '인스턴트 연애'를 꾸짖는다

조선의 부부에게 사랑법을 묻다

정창권 지음



최근 부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있었다. 평생 반려자를 떠나 보내며 눈물을 흘리던 JP(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62년 만에 위한 판결이 난 간통죄. 두 이슈는 새삼 부부의 가치를 생각하게 했던 장면이자 화두였다.

통상 20대 커플의 평균 연애 기간은 100일이라고 한다. 지난 2013년 한해 33만 쌍이 결혼할 때 이혼은 11만 쌍이었다.

물론 만남과 헤어짐이 쉬운 시대인 것만은 사실이다. 자유연애가 개인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인 선택권 가운데 하나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백년 양보해) 그렇다 하더라도 부부의 가치까지 폄하될 수 있을까?

남편과 아내를 이르는 부부는 인류의 시작이자, 인류의 근본이다. 정창권 고려대 교양교직부 초빙교수가 펴낸 '조선의 부부에게 사랑법을 묻다'는 사랑이

인스턴트로 치부되는 현실에서 '부부'의 의미를 숙고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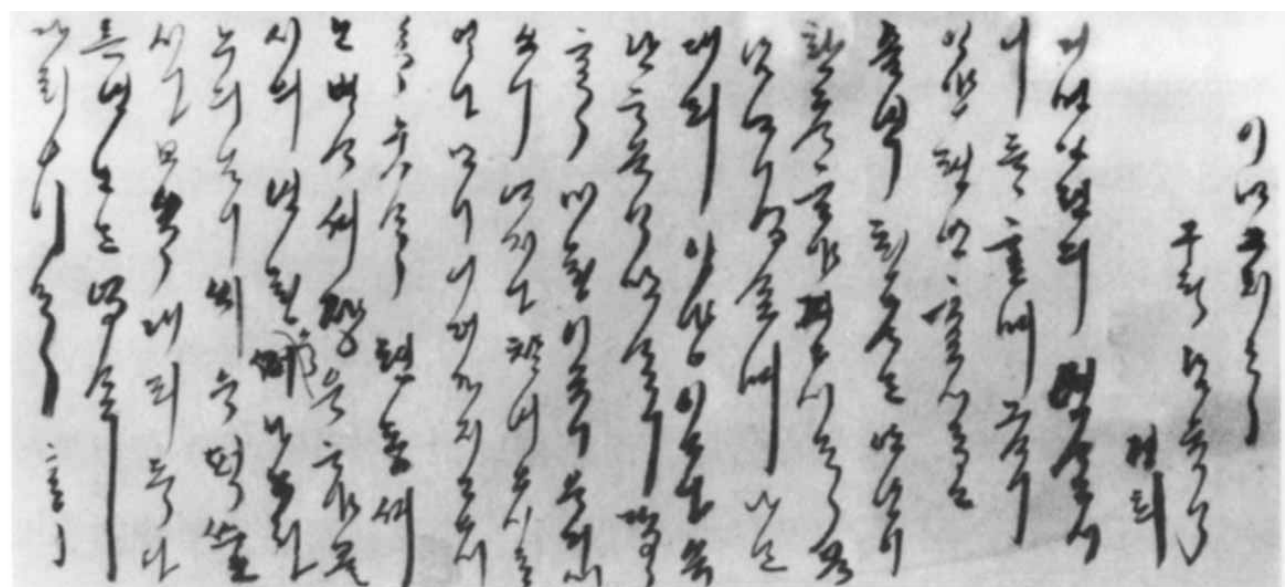
많은 이들은 성리학이 통치이념이었던 조선시대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획일화된 관점을 견지한다. 일례면 이런 것이다. 삼종지도(三從之道), 부장부수(夫唱婦隨), 내외(內外) 등과 같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만 연상한다.

그러나 저자가 펼쳐내는 조선의 부부를 엿보다 보면 그 같은 통념이 깨지고 만다.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부부관계가 돈독했던 열 쌍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조선 중기의 이항, 유희춘, 원이 엄마 부부, 조선 후기의 이광사, 박지원, 서유본, 김삼의당, 강절일당, 김정희 부부... 저자는 가상 인터뷰 형식을 통해 재미있고 생생하게 부부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조선 초기의 혼인 풍습은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라는 말로 집약된다. 신랑이 처가에 들어가 사는 방식을 일컫는다. 흔히 장가(丈家)를 간다는 말은 남자가 처가에 가서 사는 혼인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장가를 갔지, (여자가 시가에 들어와 사는)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었다.

저자는 '원이 엄마의 편지'를 소개하면서 내용 가운데 쓰인 호칭에 주목한다. 1998년 경북 안동시 정자동 무덤에서 발굴된 원이 엄마의 편지는 아들 원이를 두고 요절한 남편 이응태(1556~1586)에게 쓴 것이다.

원이 엄마는 남편을 '자네'라고 칭한



추사 김정희가 아내에게 쓴 한글편지. 아내에 대한 사랑과 음식에 예민했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다. 어투도 친구에게 말할 듯 '-소', '-네'라고 한다. 오늘날 '자네'는 아랫사람을 지칭할 때 쓰고 '-소'도 최소한 동등한 처지일 때 쓴다. 편지에는 적어도 삼종지도와 같은 수직적 관계를 찾을 수 없다.

미암 유희춘(1513~1577)이 그의 부인 송덕봉과 주고받은 편지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희춘은 '미암일기'를 남기고 홍문관 부제학을 지낸 학자였다. 그 부인 송덕봉 역시 시문에 능통했던 모양이다. 유희춘은 "부인의 시가 매우 아름답다"고 칭송을 할 정도였다.

유희춘이 1570년 홀로 한양에서 지낼 때(유배 후 다시 관직생활을 했다) 3~4

개월이나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아내에게 자랑삼아 편지를 보냈는데 보내온 답장에 이런 구절이 있다. "당신은 아마도 겉으로 인의를 베푸는 척하는 폐단과 남이 알아주기를 서두르는 병폐가 있는 듯하오.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 의심스러움이 한량이 없소."

아내의 뛰어난 점을 인정하고 '양성평등 부부상'을 실천한 남편도 있다. 진주 강씨로, 강희맹의 후손이었던 강정일당은 시 38편, 서간문 7편 등을 남긴 문인이었다. 그녀의 남편 윤광연은 자신보다 연상이며 능력이 뛰어났던 아내의 조인을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심지어 스승처럼 여겼다.

앞의 예에서 보듯 조선시대 부부는 '내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었다. 기저에는 늘 배려와 존중, 소통이 자리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당시에는 수학이나 관직, 유배 등의 이유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편지로 안부를 묻거나 사랑을 표현했다. 부부가 가장 좋은 친구이자 나를 성장시키는 '인생 동료'였다는 의미다. 저자는 묻는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 바람직한 부부상은 어떤 모습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푸른역사·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창조와 융합적 사고, 인문학에 답 있다



생각의 융합

김경집 지음

몇 년 사이에 학계에서 유행처럼 쓰이던 '융합'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보편화되다시피 했다. 학문 울타리를 넘어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융합이 강조되고 있으니 말이다. 급속한 기술의 진보와 가치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두뇌는 '속도'와 '효율' 면에서 컴퓨터의 역량을 넘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세상은 점차 창조와 융합을 필요로 한

다. 교육계에서는 미래의 융합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문과와 이과의 통폐합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상상하고 창조하며 융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분야인 까닭에 구호와 선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강연과 방송, 저술로 대중을 만나고 있는 인문학자 김경집이 펴낸 '생각의 융합'은 융합적 사고에 대한 시대적 요구들을 인문학에서 찾고 있다. 저자는 융합적 사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흥미로운 지식과 생각을 엮어 생생하게 보여준다.

대표적인 사례 '콜럼버스, 이순신을 만나다'를 보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1492년과 임진왜란이 발생한 1592년에는 1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다. 이 시기는 대항해가 활발하게 펼쳐지던 시대로 서구 열강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특히 이 무렵에는 총을 지닌 한 포르투갈인이 일본인과 조우하게 되고, 일본은 총 제작기술을 받아들여 조선을 침략하기에 이른다. 저자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1392년 조선의 건국으로부터 사고를 확장한다. 즉 모든 역사적 순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특유의 융합적 관점으로 제시한다.

그 뿐 아니다. 저자의 시각은 역사, 과학, 신화, 미술, 예술, 철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더솔·1만65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독재자서 민중으로... 권력의 이동



권력의 종말

모이제스 나임 지음

세계체제연맹이 주최하는 체스대회. 그랜드마스터에 등극하는 어린 선수들이 점점 많아지고 신인 선수들이 챔피언을 누르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권력이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권력은 얻기는 점점 쉬워지고, 사용하기는 어려워지며, 잃기는 쉬워지고 있다. 권력의 종말, 그 이유는 무엇일까?

권력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권력을 집행하는 권력자로 불리는 모이제스 나임의 '다른 세상의 시작-권력의 종말'이 출간됐다.

오늘날 권력은 점점 완력에서 두뇌로, 복판구에서 남반구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전통적인 거대 기업에서 민첩한 벤처 기업으로, 완고한 독재자에서 소도시의 광장과 사이버 공간의 민중으로 이동하고 있다. 권력의 피라미드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책은 정치, 경제, 금융, 미디어 등의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지배 세력이었던 집단들의 권력이 이동하고 있는 현상을 파헤친다.

<책읽는수요일·2만2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사리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이태리 가구 40% OFF SALE

www.hong79.com(홍친구닷컴)   신상품 다량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동구청옆) 가구빌딩   ☎ 1899-0240   이태리가구 직수입 판매   3월 19일까지